

사우디아라비아 인프라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4월 1~2주)

□ 정책 및 시장 동향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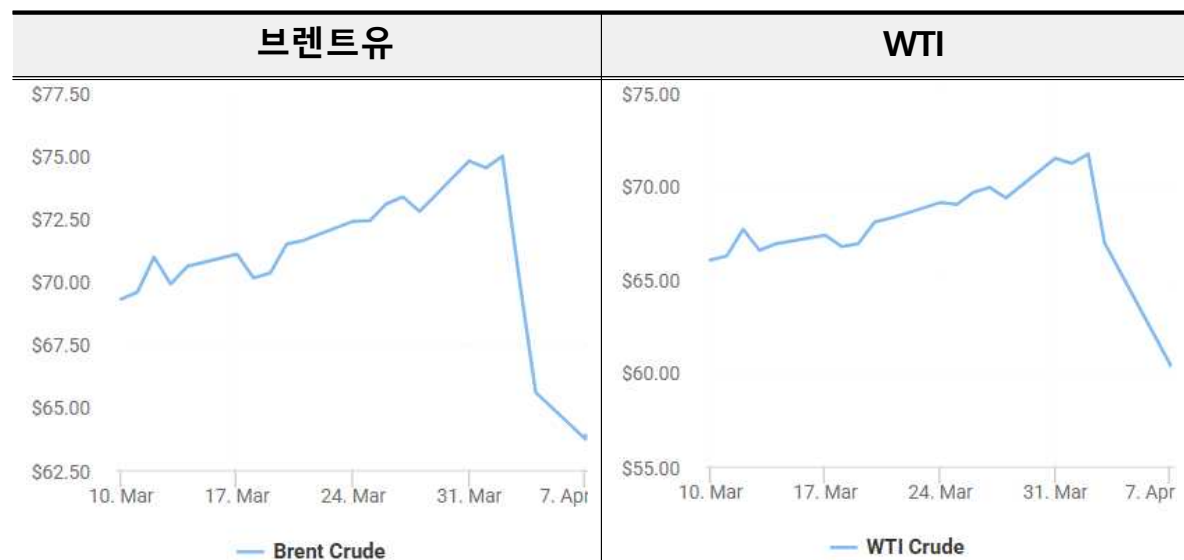
① 환율 및 기준금리 추이

구 분	내 용	비 고
환율	1 USD = 3.75 SAR (Peg system)	(2025.4.7.) Saudi Central Bank (SAMA)
기준금리	5.00 %	(2024.12.18.) Saudi Central Bank (SAMA)

-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디 리얄화의 가치가 달러화 가치에 연동되는 달러화 페그제(peg system)를 유지하고 있어 미국의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금리 조정으로 리얄화의 통화가치 유지
- 사우디 중앙은행(Saudi Central Bank: SAMA)은 2024.12.18.일자로 기준 금리로 사용되는 Repo Rate를 0.25% 인하 발표함

② 국제유가 동향

구 분		유가	변동 (전일대비)	비 고
유 가	브렌트유	63.77	- 1.81	USD/bbl
	WTI	60.24	- 1.75	



< 자료: Oilprice.com (2025.4.7.) >

(단위: USD\$)

구분	3.24	3.25	3.26	3.27	3.28	3.31	4.1	4.2	4.3	4.4
Brent	73.00	73.02	73.79	74.03	73.63	74.74	74.49	74.95	70.14	65.58
WTI	69.11	69.00	69.65	69.92	69.36	71.48	71.20	71.71	66.95	61.99

※ 기준: Brent (25.4월 계약분), WTI (25.4월 선적분)

3 시장 동향

- OPEC+, 과잉 생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 감산 계획 발표^(MEED 3.24)
 - OPEC+는 7개 회원국에 대한 추가 원유 감산 계획을 발표함
 - 이번 조치는 합의된 수준을 초과한 생산량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월별 감산 범위는 18.9만 b/d ~ 43.5 b/d까지 다양하며, 2026.6월까지 지속될 예정
 - 사우디가 주도하는 OPEC 회원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非OPEC 국가들이 포함된 OPEC+는 시장 안정을 위해 2022년부터 585만 b/d의 원유 생산을 감축해 왔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의 약 5.7%에 해당함
 - 이러한 감산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라크, UAE,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알제리, 오만 등 8개 OPEC+ 회원국은 지난 3.3일 회의에서 2022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4월부터 원유 증산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새로운 계획에 따라 이라크가 가장 많은 감산을 부담하며, 카자흐스탄과 러시아가 그 뒤를 이음
 - OPEC+의 핵심국인 사우디는 향후 3개월 동안 6,000 ~ 15,000 b/d의 소규모 감산을 시행할 예정
 - 한편, 카자흐스탄은 미국의 주요 석유사인 Chevron의 Tengiz 유전에서 생산량을 확대하는 등 기록적인 수준의 생산량을 달성 중인데, 지난 2월 카자흐스탄의 생산량은 19.8만 b/d 증가로 177만 b/d를 기록하여 OPEC+ 할당량을 최소 30만 b/d 초과한 수치임
 - 최신 OPEC 보고서에 따르면, OPEC+의 총생산량은 36.3만 b/d 증가하여 4,101만 b/d를 기록함
 - 한편, OPEC+ 회원국은 美 대통령 하에서 미국의 원유 생산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이는 OPEC+ 시장 점유율을 위협하고 유가 통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RCU, 신임 CEO 임명^(MEED 3.25)

- Royal Commission for Al-Ula (RCU)는 지난해 초 전임 CEO인 Amr Bin Saleh Abdulrahman Al-Madani가 퇴임한 후 직무대행을 수행해온 Abeer Al-Aql을 신임 CEO로 임명함
- 신임 CEO는 2017년부터 RCU에 재직중이며, 지난해 1월부터 직무대행으로 임명되었고, 이전에는 전략적 실행관리부서, 민간부문 이니셔티브 및 파트너십부서 등에서 책임자로 근무함
- 한편, 전임 CEO는 RCU에 근무하기 전후 활동과 관련 있는데, 근무 전 King Abdullah City for Atomic & Renewable Energy에서 TalentS에 5.5백불 규모의 계약을 부정한 방식으로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RCU에서는 TalentS를 다양한 부서체 추천해서 3.46억불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하도록 도우며 개인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음

4 건설시장 동향

○ Qiddiya, 아쿠아라비아 & 식스플래그 연내 개장^(MEED 3.24)

- Qiddiya Investment Company (QIC)는 올해 말까지 식스플래그 테마파크와 아쿠아라비아 워터파크를 개장할 계획임
- QIC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상기 테마파크의 공사가 각각 89%, 84%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됨
- 2월 QIC는 공식적으로 미국의 Six Flags Entertainment Corporation을 식스플래그와 아쿠아라비아의 운영사로 선정했으며, 2021.12월에는 프랑스의 Bouygues Batiment International과 로컬의 Almabani General Contractors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약 10억불 규모의 식스플래그 건설 계약을 체결하였음. 또한, 2022년에는 로컬의 El-Seif Engineering Contracting과 UAE의 Alec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5억불 규모의 아쿠아라비아 건설 계약을 체결함
- 식스플래그는 32만㎡의 면적에 스릴 라이드 10개, 가족과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기구 18개가 있으며, 아쿠아라비아는 25만㎡의 면적으로 중동에서 가장 큰 워터파크로 설계되어 23개의 놀이기구와 어트랙션을 갖출 예정

○ Qurayyah IPP 확장 프로젝트 EPC 계약 체결^(MEED 3.24)

- 이집트의 Orascom Construction과 스페인의 Tecnicas Reunidas JV가 26억불 규모의 사우디 동부의 Qurayyah IPP 확장 프로젝트 EPC를 수주함
- 계약은 Acwa Power, Saudi Electricity Company (SEC), Haji Abdullah Alireza & Company (Haaco)로 구성된 디벨로퍼 컨소시엄인 Hajr Two Electricity Company와 체결하였음
- 이집트의 Orascom Construction는 이집트에 건설한 4.8GW 복합 사이클 가스 발전소 2개소를 포함하여 발전 포트폴리오가 총 30GW를 초과함
- SEC와 Acwa Power는 올해 2월 동 프로젝트를 위해 주 구매자인 Saudi Power Procurement Company (SPPC)와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지난 2.20일 Acwa Power와 SEC는 동 프로젝트의 발전 용량이 3,010MW이며 탄소 포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증권 거래소 제출 서류에 밝힌 바 있음
- 동 프로젝트에서 SEC와 Acwa Power는 약 35.7억불 규모인 40%씩 지분을 보유하고 Haaco가 나머지 20%를 보유할 예정임
- 동 프로젝트는 380kV 변전소 개발, 자금 조달, 건설 및 이전도 포함되며 운영 기간은 25년임

○ Dawiyat, 48MW 리야드 데이터센터 건설 착공^(MEED 3.24)

- 국영전력회사 SEC는 최근 실적보고서를 통해 자회사인 Dawiyat Integrated Telecommunications & Information Technology Company가 진행 중인 리야드 대형 데이터센터 건설 공사가 지난해 착공되었다고 발표하였음
- 동 데이터센터는 최대 48MW 규모의 Tier 3 인증 데이터센터임
- MEED Projects에 따르면, 현재 사우디에서는 40억불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설이 진행 중이며 실행 전 단계 프로젝트는 120억불 규모로 나타남
- GlobalData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에 대한 총 투자 규모가 지난해 706억불에 달했으며, 올해에는 5% 성장을 예상해 743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PIF, 기가 프로젝트 지출 조정 동향^(AGBI 3.24)

- PIF는 100개 이상의 기업에 걸쳐 막대한 지출 삭감을 명령하여 프로젝트 지연 및 해고를 촉발했다고 정통한 관계자들이 AGBI에 밝힘
- 소식통에 따르면, 경제 혁신 전략의 핵심인 국부펀드는 50개 이상의 개발 기업을 포함한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2025년 지출을 최소 20% 줄여야 한다고 언급하였으며 정부가 프로젝트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면서 일부 예산이 최대 60%까지 삭감되었는데 이러한 삭감안은 지난해 12월에 열린 PIF 이사회 회의에서 승인되어 현재 시행 중으로, 몇몇 프로젝트 예산은 동결되거나 삭감되었으나 취소된 프로젝트는 없다고 함
- 또한 사우디의 기가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PIF 지원 기업들은 계약업체와 컨설턴트에게 작업 속도를 늦추거나 축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함
- 기가 프로젝트는 최소 5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몇몇 메가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복잡성과 개발 시간이 크게 증가하는데, 총 개발 비용으로 1조 불이 넘는 동 프로젝트들은 석유에서 벗어나 경제를 다각화하고 사우디 시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우디의 비전 2030 전략의 핵심 프로젝트임
- 한편, PIF는 지난해 11월 블룸버그 보도에 대한 답변으로 이전에 발표된 모든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것이며 연기된 프로젝트는 없다고 밝히며 실제로 자본 배치가 증가하고 있기에 2030년까지의 모든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한 자금 조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함
- 그러나 소식통은 수주 예정인 일부 기가 프로젝트 계약이 취소되었다고 AGBI에 전했으며, PIF는 AGBI과의 논평을 거부하였음
- 또한 PIF와 다른 정부 기관들은 광범위한 우선순위 재조정의 일환으로 모든 국제 컨설팅 회사와의 관계를 재평가하고 있다고도 전해지며 재무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정부 및 준정부 기관도 올해 지출을 최소 20% 줄이도록 지시받았다고 전달받음
- 현재 Opec+ 감산으로 생산량이 제한되고 글로벌 유가 하락을 막지 못하면서 주정부의 수입 부족이 가중되는 추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소식통은 2034년 FIFA 월드컵, 2029년 아시안 윈터 게임, 2030 엑스포와 같은 주요 글로벌 이벤트와 관련된 프로젝트 예산은 보호되고 있다고 추가 언급함
- 한편, PIF는 2030년까지 연간 1,000억 불의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를 위해 지난 2월 마이애미에서 열린 FII Priority Summit과 같은 행사들에 참석하고 있음

○ 네옴, 해안 경비대 주거 빌리지 입찰 마감 연기^(MEED 3.25)

- 네옴은 아카바만 해안도로 북쪽의 Haql에서 남쪽으로 20km 떨어진 해안 경비대 주거 빌리지 건설 프로젝트의 입찰 마감일을 3.26일에서 4.23일로 재차 연기함
- 동 프로젝트는 1km² 면적에 걸쳐 Design-Build로 개발 추진되며, 주거동, 행정동, 군 및 경찰 시설, 모스크, 쇼핑센터, 스포츠시설, 의료 클리닉, 학교, 민방위 시설, 창고, 폐기물관리 시설 및 관련 인프라가 포함됨
- 동 프로젝트는 2단계로 개발될 예정으로 1단계는 418,500m² 면적을 차지하고, 공사 기간은 15개월임

○ 킹살만 국제공항 제3활주로 개발 Design-Build 입찰 연기^(MEED 3.26)

- KSIADC는 2월 마지막 주에 공고한 킹살만 국제공항의 제3활주로 Design-Build 프로젝트의 입찰마감일을 3.24일에서 4.21일로 연기함
- 제3활주로는 현재 킹 칼리드 국제공항의 기존 2개 활주로에 추가되며, 향후 킹살만 국제공항의 일부로 통합될 예정임
- MEED는 동 프로젝트 PQ를 1.18일까지 접수 마감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동 프로젝트는 영국의 Foster + Partners가 공항 마스터플랜(터미널 및 6개 활주로, 부동산 개발 포함), 미국의 Jacobs가 신규 활주로 설계 및 마스터플랜, 영국의 Mace가 딜리버리 파트너, 로컬의 Nera가 구역 설계 컨설턴트로 참여하고 있음

○ 두산에너지빌리티 + Sepco 3, PP12 계약 체결^(MEED 3.26)

- 중국의 Sepco 3와 두산에너지빌리티가 PP12 확장 프로젝트의 EPC 계약을 체결함
- 지난해 11월 MEED는 동 컨소시엄이 PP12 확장 프로젝트를 수주할 것

이라고 독점 보도한 바 있음

- 동 프로젝트는 1,800MW 용량의 신규 복합 사이클 가스터빈(CCGT) 발전소로 해당 컨소시엄은 PP12 확장 프로젝트의 설계, 중앙 장비 공급 및 통합 시운전을 담당하게 됨
- 현지 보도에 따르면, 두산에너지빌리티의 EPC 계약 지분은 6.11억 불에 달하며, 리딩사인 Sepco 3의 지분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함
- 한편, 리야드에서 북서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할 동 플랜트는 2028년 완공을 목표함